가을 저녁 적시는 거사들 음성공양

선불남성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0.28(일) 오후 5시 나루아트센터

불교계 유일한 남성합창단
찬불가, 가요 등 20여 곡 공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선불남성합창단의 제9회 정기연주회 모습.

"너무 설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합창하러 가는 날. 어떤 아름다운 곡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합창을 할 때는 남들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벅차오르는 가슴, 합창을 하다가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힐지도 모르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이 거사들의 음성공양으로 물든다. 불교계 유일한 남성합창단 선불남성합창단(단장 차성회)은 10월 28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능동로 나루아트센터에서 제10회 정기연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축위원회, 좋은 벗 풍경소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스타항공이 후원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36명의 선불남성합창단 단원과 게스트가 참여해 찬불가, 선법가, 가곡, 서곡, 가요, 재즈 등 지난 아홉 차례 공연에서 공연했던 대표곡들을 골라 공연한다.

공연은 총 3부로 나누어 펼쳐진다. ▲1부에서는 찬불가 '기쁜날', '가지산 물소리', '떡갈나무 잎새에 이는 바람', '산사의 저녁', '붉은 연꽃'을 신지현의 피아노, 채인섭의 모듬북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2부에서는 가곡 '그곳에 그대가 있으니', '사공의 그리움', '아버지 사랑해요'를 송승현의 피아노, 심상원의 바이올린과 함께 선보인다.

▲3부에서는 가요를 선보인다. '먼지가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슬퍼지려하기 전에', '님은 먼 곳에', '무시로', K-POP 'The Present'를 이지우의 피아노, 심상원의 바이올린, 이다은의 신디사이저, 송지운의 드럼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초청공연으로 지음의 가야금 공연이 펼쳐진다. '침향무' '누가 하는가요'를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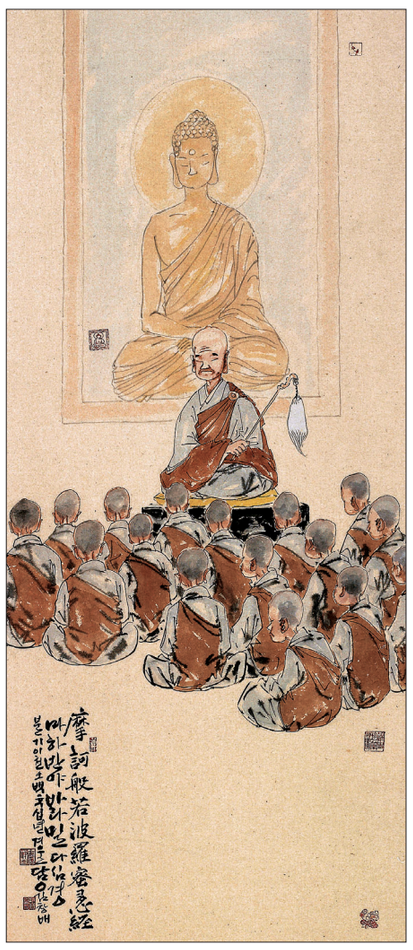
▲2부와 3부 사이에는 동대힐링코러스와 이은용이 우정출연하여 '아침 서곡', 'O mio babbino caro', 'Travels(Pat Metheny)', '인연(이선희)'을 선보인다.

▲3부에 이어서 선불남성합창단의 '카레', '트로트메들리'가 앵콜곡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성불이루리', '꿈 찾아 가리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다함께 부른다.

선불남성합창단은 2007년 조계사 찬불가교실의 거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됐다. 현재는 각기 다른 사찰의 거사 50명이 합창단을 이루고 있다.

창단 후 군장병 위문공연 등 크고 작은 사찰의 음성공양을 해온 합창단은 국립국악관현악단 국가브랜드 연주회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중 불교음악 '화엄'을 협연했고, 경기도 도립국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 서울시오케스트라,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시 관현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2009년 창단 연주회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한 차례의 중단도 없이 10회 연주회로 이어진다.

차성회 단장은 "보통 합창단이 길어도 7~8년이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단 없이 10회 정기연주회를 열게 되어 기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심으로 함께 해온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불교계 남성합창단이 창단되어 음성공양으로 인한 전법불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창배 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한·중·대만 근대미술 한자리

제7회 한·중 문화교류전
인천문화예술회관 10.20~25
수묵화·서예 등 135점 전시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하태규)는 10월 20일(토)부터 25일까지 한국, 중국, 대만의 근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7회 한·중 문화교류' 展을 개최한다.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가 주관하고 ㈜동호국제가 협찬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수묵화의 대표화가 중 한 사람인 김창배 화백을 비롯해 중국의 희준요, 기진민, 호가량, 왕기화, 유국승, 양희발, 장지금, 한로, 대만의 이소곤 화백이 참여하여 산수화 등의 그림과 서예 작품 등 총 1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북경미술원과 더불어 중국의 3대 화맥을 잇는 텐진미술원의 저명한 원로 화가이며 중국 10대 화가로 선정된 희준요, 기진민 화백과 하북성 미협부장이며 산수화의 대가인 호가량, 중국내 포도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도를 즐겨 그리는 왕기화 화백, 대만 문화대학 교수 출신으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마당 쓸기〉의 저자 이소곤 교수, 천진미협 부회장인 유국성, 난카이 대학 교수이며 독특한 색의 마술사 양희발, 금대복로미술관 주임이고 전문 산수화가인 장지금, 하남성 서예가협회 부회장이며, 자신의 서체를 개발한 한로 서예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창배 교수의합동 미술교류전으로 격조와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태규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 회장은 "지난해는 외부사정으로 교류행사를 치르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 다시 전시가 열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중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발전하여 양국의 문화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문화교류를 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주홍콩한국문화원 10월 한국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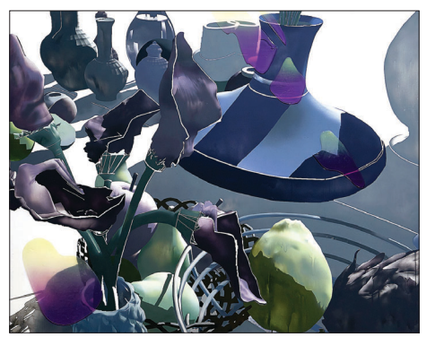
'GRAY NAVY BLACK' 展 10.10~11.23

주홍콩한국문화원은 10월 한국문화제의 일환으로 10월 10일~11월 23일까지 주홍콩한국문화원 갤러리 7층에서 'GRAY NAVY BLACK'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홍콩 미술씬에 소개하는 'Korea Young Series'의 일환으로, 기획자 이양헌은 '동시대 회화가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오래된 미술사 방법론을 통해 동시대 회화를 읽고 해석하는 전시를 구성했으며,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3인(박정혜, 장다해, 정희민)을 선정하고 작가들에게 각각 회색(GRAY), 남색(NAVY), 검은색(BLACK)이라는 색채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전 전시를 통해 동시대 회화에 대응하는 미술사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동시에 그 실패의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될 동시대 회화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박정혜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Dear. Drops'(아카이브봄, 2016)과 'Xagennexx'(온그라운드 2, 2017)에서 두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노스텔지어'(일민미술관, 2015), 'Spring water'(부산비엔날레, 2012) 등에 참여했다.

▲정희민 작가는 홍익대에서 회화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학을 전공했다. 'VisitorQ'(탈영역우정국, 2015)과 'Snow Screen'(아카이브 봄, 2017) 등에 참여했다.


정희민 作, Objects1, Acrylic on cotton, 2018

▲장다해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고, 개인전 'Built in'(Archive bomm, 2018) 및 'PACK F/W 2017'(Mudaeruk and Others, 2017), 'Painters by Painters' 18 '(Weekend,2018)에 참여했다.

▲이양헌 기획자는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전공했으며,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세실극장, 2018), '비평실천'(산수문화, 2017) 등을 기획했다.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